

광주도시공사 첫 흑자... 경영 개선 주목

지난해 매출 4024억원 48% ↑

자산 매각·원가 절감 효과

부채도 1123억원 줄여

공기업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도시공사의 경영성적표가 주목받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지난해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와 원가절감 등으로 창립 이래 최대 경영성과를 달성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뚜렷한 공격원조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영체제에서 이룬 결과여서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4024억원으로 전년 2723억원보다 4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60억원으로 전년 739억원과 비교해 16%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85억원으로 전년 171억원 대비 67%나 증가했다. 2010년 순이익은 7억원이다.

부채비율도 매년 줄어드는 등 재무 건전성이 호전됐다.

부채총액은 5063억원으로 전년 6186억원 대비 1123억원 줄었다. 부채비율은 147%다. 정부가 요구하는 부채비율 290%보다 현저히 낮다.

미분양 자산과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도시공사는 분석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선 투입 자금 회수, 만기도래 사채 적기 상환 등으로 공사채 1256억원을 갚았다.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뽑혔으며, 광주전남 사회공헌축전 3년 연속 종합 대상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직원들이 노력해 준 덕분이다. 향후 남구 도시철도 단산입단지조성사업, 첨단3지구개발사업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유지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로 경영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 사옥 전경.



자전거 출퇴근 함께해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와 상무역 역발전협의회(회장 최중현)는 최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행진 캠페인'을 펼쳤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시-기아자동차, 지역농가 살리기 힘 모은다

업무협약... "농산물 적극 홍보"

광주시와 기아자동차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힘을 모은다.

광주시와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은 지난 31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시장과 기아차 김중용 부사장, 오효열 광주광역시농민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광주시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며, 기아자동차도 광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협약식에서 "FTA 바람이 한 번씩 불고 갈 때마다 농민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면서 "이를 함께 격정하고 어떤 길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은 시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나주에 위치한 화인코리아가 부도났을 당시 기아차 경영지원위원으로 있으면서 기아차에 오리고기를 납품도록 한 적이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핵심인 기아차가 이렇듯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 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김중용 부사장



윤장현(왼쪽에서 네번째)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김중용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부사장과 광주시-기아차 광주공장 간 지역 농산물 사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은 "기아차는 앞으로도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적극 소비토록 노력할 것이고 8000여 직원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면서 "오늘 협약이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효열 광주광역시농민회장은 "힘들 때 손 잡아주는 것, 마음에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협약식은 농민들의 땀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협약에 대기업인 기아자동차가 동참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

市, 송정역 교통인프라 확충... 접근성 높이기로

정부에 사업비 지원 요청

광주시에 광주송정역 접근성 개선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8월께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개통되면 이용객이 현재보다 50% 이상 늘어 교통불편이 가중할 것으로

판단, 교통인프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상무대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도로 확보를 위해 광주송정역 후면에 신덕지하차도와 송정지하차도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개설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광주송정역 뒤편을 따라 길이

1000m, 폭 20m로 신설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시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송정역을 찾는 승객이 상무대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해 국토부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평동산업단지와 어등산

관광단지, 선운택지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평동산단~장록교 확장, 신덕마을~중보교 제방도로 확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록교 도로는 기존 2차선 도로를 길이 960m, 폭 35m로 확장하고 신덕마을에서 중보교 확장공사는 황룡강을 따라 중보교까지 길이 890m, 폭 15m로 넓힌다. 사업비는 각 470억원과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9일까지 신청

광주시가 2016년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2.7%)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31일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일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액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선정 결과를 문자서비스(SMS)로 알리고, 오는 6월 중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이자 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분위 순으로 지원된다. 문의는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062-613-2723). /채희종기자 chae@

자료, 광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역 대학생이다.(대학원생 제외)

시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의 지원 자격을 검토한 후 해당 학생들에게 지원 결과를 문자서비스(SMS)로 알리고, 오는 6월 중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이자 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분위 순으로 지원된다. 문의는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062-613-2723). /채희종기자 chae@

법인지방소득세 5월2일까지 신고·납부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인 오는 4월말(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고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관련 문의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서류(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본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안본명세서,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자치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 서류나 첨부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김에리 시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가급적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텍스를 이용하되, 월말에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위텍스 과부하로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동구 062-608-3113~4 ▲서구 360-7827, 7998 ▲남구 607-3114~5 ▲북구 410-8183, 8169 ▲광산구 960-8166~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영양교사 대상 쌀 소비 촉진 교육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교 급식과 학생 식생활 교육 등에서 쌀 소비를 확산하는 전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 전문리더 양성 교육(직무연수)'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무연수 과정으로 1기와 2기로 나눠 1기는 오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2기는 5월7일부터 6월11일까지 각각 기간 중 3회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전문리더의 역할, 쌀 가공 현장 체험, 자세대·단체지도 방안 등이고,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정년희 교수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광주시교육청 소속 영양교사 80명(1기별 40명씩)이며, 참가 신청은 1기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이며, 2기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 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후 20억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수학여행, 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3억)후 연 5억원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